2011학년도 제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 시 : 2011년 1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선관회의실

제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2011년 1월 28일(금), 9:30~10:30

2. 장 소: 선관 회의실

3. 참석위원(4명)

오 수 근 위원장	기 획 처 장
차 미 경 위 원	학 생 처 장
서 미 옥 위 원	예 산 과 장
정 창 모 위 원	삼덕회계법인이사

불참위원(4명)

신 경 식 위 원	재 무 처 장
류 이 슬 위 원	학부 총학생 회장
김 지 영 위 원	학부 총학생 부회장
이 혜 경 위 원	대학원 학생 대표

4. 안 건: 2011학년도 등록금산정을 관한 심의 건

5. 회의내용

□ 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라 한다.)에서 2011학년도 등록금을 위한 등심위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였으나, 학생들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하는 총장님의 의견이 반영되어 2011. 1.28 제 4차 등심위를 개최함.

□ 오수근 위원장은 등심위 위원 8명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 학생들 대표인 류이슬위원, 김지영위원, 이혜경위원은 9시 40분경 회의장에 도착하여, 등심위 참석의 선결조건으로 학생측 입장을 전달하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등심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학생측 입장>

1. 다음 회기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학교-학생) 동수구성 및 운영 등을 사전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며 이를 공문으로 전한다. 이는 이번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선결조건이다. 이 조건을 받아 들여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이다.

2. 학교가 재학생의 등록금 동결의 이유를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밝힌 만큼 이는 신입생과 대학원생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 : 신입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도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1이 되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2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1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 1을 받아줄 경우 우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2에 대해 요구할 것이다.

□ 학생들의 입장에 대하여 오수근위원장은 다음회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개최시기, 운영방법을 사전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함. 그러나 공문을 통하여 전달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등심위에 참석하여 위의 내용을 회의록에 남겨 확인해 놓자는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사전협의회는 등심위 구성동수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사전협의회를 통하여 논의할 수 있음은 분명히 함.

□ 류이슬위원은 학생측의 입장인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학교-학생) 동수 구성 요구인 1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등심위에 참석할 수 없으며, 2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도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등심위 참석을 거부하였으며, 김지영위원, 이혜경위원도 동일한 입장임을 밝히고 9시 55분경 회의장을 빠져 나감.

□ 오수근위원장은 참석 위원들과 함께 제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함.

□ 서미옥위원이 새로 개편된 약대 등록금에 대하여 제 3차 등심위에서 교육비차이도 1.49로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었으나 타학교와의 비교검토 자료를 통하여 한번 더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함.

□ 오수근 위원장은 타대학에 비해 본교 약대의 위상과 명성으로 보아 교육비차이도 1.49의 등록금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으며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함.

□ 10시 10분경 류이슬위원, 김지영위원, 이혜경위원이 먼저 전해준 학생측 입장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수정본을 전달함.

〈수정 전〉

- 다음 회기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학교-학생) 동수구성 및 운영 등은 사전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며 이를 공문으로 전달한다.

〈수정 후〉

→ 다음 회기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교-학생) 동수구성을 한다.

□ 오수근위원장은 수정된 내용을 전달받고 내용 확인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함.

□ 서미옥위원이 2011학년도 계절학기등록금 인상율에 관한 내용을 심의

안건으로 제시하며, 계절학기 등록금의 성격, 본교의 현황 및 타학교 계절학기등록금에 대해 설명함.

□ 서미옥위원은 계절학기를 처음 개설했을 당시에는 졸업시 부족한 학과목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개설교과목의 증가 및 다양화로 인하여 학점 누적 효과가 발생하여 학기 등록금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현재 본교의 계절학기 등록금은 2년째 동결하였고 계열에 상관없이 인문계열 등록금의 약 43%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정창모위원은 계절학기를 학기의 보완적 성격으로 보느냐 학기의 연장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외부에서 볼 때는 기존의 시설과 환경에 강사료 및 일부 직접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서미옥위원은 과거 계절학기 등록금은 학기등록금 인상율을 적용하였으나 2011학년도에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인상율이 달라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을 설명함.

□ 오수근위원장은 계절학기 등록금이 타대학과 비교할 때 높지는 않지만 올해 재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하였고, 계절학기는 신입생보다 재학생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으므로 재학생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나머지위원들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계절학기 등록금도 재학생등록금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에 동의함

□ 오수근위원장은 이로써 2011학년도 등록금 심의를 모두 종결함을 선언하고 10시 30분에 폐회함.

2011년 1월 28일

오 수 근 위원장

차 미 경 위 원

서 미 옥 위 원

정 창 모 위 원